

통영적 사유

경남 통영에는 유독 문화예술인들이 많다. 청마 유치환, 유치진, 소설가 박경리, 시인 김춘수, 작곡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행정구역상 또 인구의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수에 비해서 자기 분야에 걸출한 인물들이 굉장하게 많은 편이다. 청마 유치환은 것발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노래했다. 또 청마가 통영여자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 이영도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아 주지 않는 이영도를 향해 애끓는 마음을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고 노래했다.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임은 물같이 까딱 않는데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날 어찌란 말이나

파도처럼 울렁이는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아무리 치달아 부딪혀도 까딱없는 물은 완강하고 있다. 그러다 3년여의 구애 끝에 드디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라"라는 시를 쓰게 된다.

여느 시인들도 그러했지만 유치환의 언어 배치를 보면 바다와 육지를 함축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개념의 쌍을 이룬다. 그러면서 제3의 가치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바다와 육지가 서로 마주

하고 섬과 육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바다가 육지를 휘돌아 품은 듯 육지가 바다를 겨안은 듯 하는 통영의 자연적 환경과 매우 밀접한 사유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통영은 김밥이 유명하다. 일명 충무김밥이다. 충무김밥은 육지의 먹거리와 오징어 등 바다의 먹거리를 섞어서 만든 김밥이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 독특한 제3의 맛을 낸다. 이게 통영이다. 글 권영재



통영의 바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안내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관련 사이트는 <http://whatsnew.mosf.go.kr> 이며 분야별, 대상별, 부처별 정책보기를 통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달라지는 정책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나 대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교육·노동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시간에 대해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운수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축소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의료

△건강보험료 개편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은 퇴직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도 폐기된다. 피부양자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값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

등급)은 평균 15만4천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천300원에서 4만8천6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연금액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됐다.

◇공공안전·질서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차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고속도로·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차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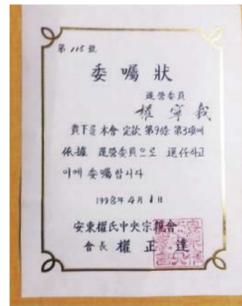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족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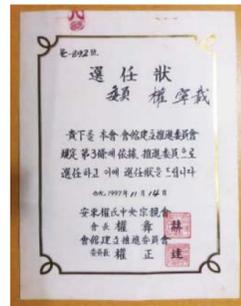
권영재 족친



가보로 간직하고 있는 권영우 전 의원 글씨



운영위원 위촉장



회관건립추진위 선임장

비가 추추추적 내리는 지난 7월 9일 청량리에 살고 있다는 족친을 찾아 나섰다. 바로 권영재(35년생, 동경공과, 34세)씨이다. 주소를 들고 집을 찾고 보니 아직 개발되지 않은 허름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권영재씨는 1962년부터 청량리 철도 바로 옆에서 부인(82세)과 함께 살고 있다. 고향은 안동시 임동면 지동이다. 13살 때 대구 교동으로 갔다. 6.25 사변이 발발하여 대구경찰서에 불려 갔다. 군번도 없이 학도 병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받고 총을 들었다. 3년 후에야 부산에서 정식으로 8주 교육을 받고서야 군번 있는 군인이 되어 부산 병기지사서부 창설 멤버가 되었다.

만기 제대 하고 1958년 무작정 상경했다. 온 좋게 미8군 고문관이 경영하는 미태평양주식회사 사원으로 입사하여 베트남 전쟁 때 3년 5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근무하다 귀국했다. 주임무는 운전이었다.

귀국한 후에도 18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 덕분에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세명

대학교를 설립한 권영우 전 국회의원이었다.

권영우 전 의원과 함께 세명대학교 부지를 몰색하기 위해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6개월에 걸쳐 이곳저곳 돌아다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권영우 전 의원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권영우 의원 모친께서 아들처럼 아껴주셨다. 이 당시(1998) 안동권씨중앙총회 운영위원도 하고 회관건립추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권 전의원이 돌아가시자 생계가 막막했다. 용달차를 사가지고 점보는 사람들이 산신 기도하러 가는데 실패했다. 그러다 몸을 다쳐 걸음도 못 걷게 되어 이것마저 끊어져 버렸다.

때마침 아는 사람이 청량리 일대를 재개발한다고 꼬드기는 바람에 마지막 있는 재산 집마저 사기당해 날려 버렸다. 오갈 데가 없었다.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권영미(복야공과, 34세)씨를 만났다.

권영미씨는 같은 동네에 이사는 지 30여년이 되었는데 동네 통장을 한지가 10여년이 되어서

집수리, 보일러 수리에서부터 동사무소, 구청 그리고 아들 때 병원까지 거의 모든 일을 도와 주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미씨 역시 같은 일가(一家)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경이 더 쓰인다.

현재 매월 국가에서 80만원 생활보조금을 받는 것도 모두 권영미씨 덕분이다. 그 80만원 받아서 본인과 부인 약값, 수도세, 전기세까지 내고나면 겨우 56만원으로 그야말로 뼈다귀 생활한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어릴 적 대구경찰서에 끌려가 총을 들어야만 했던 세월을 보상받으려고 알아보았더니 대구경찰서에 기록이 없었다. 분명히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오가며 총을 들었는데 기록이 없었다. 그럼 누가 데려가고 누가 총을 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월이다. 확인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인우보증이라도 서주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더 몸뚱이리가 그렇게 쪼여던 군번 없는 참전 용사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이라도 몇 푼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데 옛날에 중앙총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족친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다.

올해 나이 86인데 오죽했으면 내가 안동권씨 대총회에 전화를 걸었겠는가? 그는 말문이 막히는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649-214367, 예금주 : 권영재
취재·편집국장 권행완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공중인간 청주로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장(현)
- 춘천지검청/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합청 과정, 법무부 검사
- 안산(초대)/충주지청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중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엔젤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세무법인 확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민섭
---	--	---